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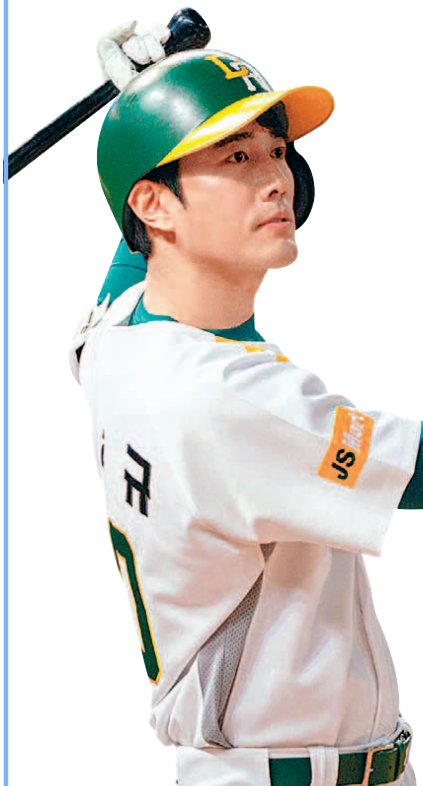
‘야구에 미친 놈’ 임동규 수천 번 연습으로 탄생



▶ 연기자 조한선은 대학생 때 프로축구팀에 지명된 골키퍼 출신이다. 스포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드라마여서 부담도 느꼈지만 “이왕이면 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스토브리그’의 한 장면. 사진제공 | SBS

대본 읽자마자 특별출연 결정 준비 기간 국내외 선수들 조사 까칠한 매력 위해서 7kg 감량

“스포츠계 치부 후폭풍 부담감 이왕 하는거 우리가 하자 결심 정말 죽기 살기로 파고 들었죠”



“정말 죽기 살기로 파고들었죠. 보여 주고 싶었거든요.”

연기자 조한선(39)은 작년 가을 SBS 금토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대본을 읽자마자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나?”하고 놀랐다. 그 길로 연출자 정동운 PD와 이신화 작가를 만나러 갔다. 국내 방송계에서 흥행하기 쉽지 않다고 소문난 스포츠 소재에다 ‘특별출연’이었지만 “역할 외에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았다. 제작진을 만나고 나오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출연을 결정했다. 그렇게 ‘드림즈 4번 타자’ 임동규가 탄생했다.

● ‘칼을 갈았다’

‘스토브리그’ 종영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시 용산구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사옥에서 만난 조한선은 “사실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초반 2회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야구단 드림즈의 운영팀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악역’과 같은 위치이면서 “야구에 미친 놈”인 임동규를 완성하려면 야구 연습도 게을리 해선 안 됐다.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르

는 긴장감 속에서 야구 연습에만 몰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원래 야구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손잡고 지금의 한화 이글스인 빙그레 이글스 경기를 보러 가곤 했다. 그럼에도 공을 겨우 맞추는 수준이었다(웃음). 드라마를 준비하는 한 달 반 동안 국내외 유명한 선수들에 관한 사항을 다 찾아냈다. 날렵한 몸을 가진 4번 타자들이 꽤 있더라. ‘차라리 까칠한 매력을 살리자’ 싶어 7kg 정도 감량했다. 야구와 신을 때부터 타석 들어설 때까지 행동도 직접 설정해 수천 번 연습했다.”

대학생 때 프로축구팀에 지명될 정도로 실력 좋은 골키퍼였던 그는 드라마가 “스카우트 비리 등 스포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면이 있어 후폭풍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다. 하지만 “이왕 한다면 우리가 하자”고 마음먹었다. 드라마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로 컸다는 의미다. “나만 잘하면 돼”라는 마음으로 달려들자 시청자도 열광하기 시작했다. SNS에 “답글을 다 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메시지와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반응은 정말 오랜만이다. 2003년 시트콤 ‘논스톱3’과 2004년 영화 ‘늑대의 유혹’을 기억하는 이들이 다시 응원을 보내주시니 열렬하다. 솔직히 ‘그 사

이에 임팩트를 제대로 남기지 않았구나’ 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고민도, 마음고생도 분명 많았다. 드라마에서 주로 보여준 젠틸한 연기가 아닌 새로운 면을 언젠가 보여주고 싶어 착실히 준비했다. 그야말로 칼을 갈았다.”

● ‘아내와 두 아이가 삶의 원동력’

“진짜 한 작품만”이란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인지 그는 ‘스토브리그’라는 “새 전환점”을 맞았다. 2010년 결혼한 아내와 11살, 9살이 된 아이들이 그 기회를 안게 된 ‘원동력’이라 자부하고 있다. 3월 촬영하는 15분 내외의 짧은 단편영화에서도 ‘아버지’ 역할로 흔쾌히 출연하기로 했다. “결혼하고 나서 연기를 대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 가장이자 아빠가 되니 스태프의 마음이나 배역에 대한 소중함이 깊게 다가왔다. 특히 내가 못 하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질까 생각이 들면서 더욱 약삭같이 하게 됐다. 오기도 생각하고.”

‘임동규 이후의 조한선’을 묻자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독기 품었다”는 말이 실감나는 눈빛이었다.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몰입시킬지는 이제 나와 벌일 싸움이다. 더 파고들어야지.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임현주 아내 ‘노브라 방송’ 입장 밝혀

MBC 임현주 아나운서가 최근 ‘노브라 방송’에 대한 악성 댓글에 입장을 밝혔다. 13일 MBC 다큐멘터리 ‘시리즈M’에서 브래지어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담은 임 아나운서는 이에 참여한 소감을 SNS에 남겨 악성 댓글 공격을 받았다. 그는 16일 SNS에서 “꼭 브래지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실험해 보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취지를 설명하고 “‘노브라’가 선택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으나 하루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선택을 존중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재현 “날 잊어주세요” 게시 소동



연기자 안재현이 16일 오전 SNS에 “날 잊어주세요”라는 글을 남겨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과거 사진도 남겼다. 이에 누리꾼은 전 아내 구혜선과 파경을 맞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며 격정의 목소리를 냈다. 안재현은 지난해 8월 구혜선과 파경을 맞은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팬들의 우려에 안재현은 이날 오후 관련 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날 “개인적인 SNS 글로 소속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큐브엔터 회장, 음원 사재기 수사 요구

그림(여자)아이들과 비투비 등이 소속된 기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회장이 음원 사재기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홍 회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모든 음악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키워온 케이팝은 세계에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국내 음악산업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음원산업에 선두에 서야 할 차트는 이미 사재기의 꼭두각사가 되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음악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기자 류시원, 15일 비공개 결혼



연기자 류시원(48)이 15일 결혼했다. 류시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친지, 지인들을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 예식을 올렸다. 신부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류시원과 신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류시원은 앞서 2010년 결혼했지만 2012년 파경을 맞았다.

영국 BBC 간 ‘배캠’…세계적 팝스타와 ‘온에어’

(배철수의 음악캠프)

오늘부터 5일간 英서 특별 생방송 6개월 공들여 마리·월시 등 섭외



국지사, 공연 매니지먼트사 등 4단계 이상 협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표 팝 프로그램”이란 ‘배캠’의 이미지와 함께 19일 런던에서 열리는 ‘2020 브릿어워드’ 시상식이 ‘황금 라인업’을 완성하는 데에 힘을 보탤다. 가수들이 시상식 참석을 위해 런던에 머무르는 덕분에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생방송 스케줄을 맞출 수 있었다.

가수 윤도현과 연기자 유해진도 각각 19일과 21일 등장한다. 평소 배철수를 “존경하는 선배”로 꼽았던 윤도현은 ‘배캠’ 30주년 관련 다큐멘터리 프리젠테로도 나서 거의 모든 현지 일정을 함께한다. 현재 해외에 잠시 머물고 있는 유해진은 ‘팬심’ 하나로 기꺼이 출연을 결정했다. 30주년 당일인 3월19일 콘서트 형식의 무대에 선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부산영화제 화제작 ‘기도하는 남자’ 20일 개봉

(2018년)

박혁권·류현경 등 베테랑 배우 출연 공개 당시 파격적 전개와 결말 평가



박혁권과 류현경, 남기에까지 베테랑 배우들이 선택한 영화 ‘기도하는 남자’가 20일 개봉한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와 그의 아내가 처한 위기를 통해 종교라는 믿음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짚는 영화다. 이미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주목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기도하는 남자’(제작 스튜디오 호호)는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인간상을 그려온 박혁권과 류현경, 남기에 등 연기력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배우들의 등장으로 시선을 붙잡는다. 박혁권은 지독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개척교회를 배경으로 신념을 지키려는 목사 역을, 류현경은 그의 아내 역을 각각 맡아 연기를 펼쳤다. 남기에는 박혁권의 장모 역을 연기하며 드라마의 위기와 갈등을 촉발한다.

특히 박혁권은 최근 영화 ‘해치지 않아’와 ‘미스터 주: 사라진 VIP’를 통해 코믹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 뒤 다시 분위기를 바꾼다. 박혁권은 이번 영화에서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성직자를 연기한다. 그는 “현

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강동현 감독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담은 작품”이라며 “영화적으로 극화했지만 자전적인 경험에서 출발해 보통의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정서와 고민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기도하는 남자’는 2018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부문에서 처음 공개됐을 당시 ‘파격적인 전개와 결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 ‘외출’ ‘라디오 데이즈’ 등 촬영을 담당했던 강동현 감독은 단편영화 연출작인 ‘애프터 세 이빙’으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주목받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백민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